

# 손, 세계가 보고 있다

### ESPN, 참가선수 736명 중 '10인의 월드컵 스타' 선정

### 영국 언론은 '브라질 월드컵서 빛날 유망주 6인'에 꼽아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해외 언론의 시선도 뜨겁다.

세계적인 스포츠미디어 ESPN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알아야 할 10인의 월드컵 스타'를 꼽았다. 여기에 흥명보호의 공격을 책임질 손흥민이 포함됐다. 무려 736명의 참가 선수 중 추린 10명에 뽑힌 것이다.

손흥민을 꼽은 인물은 전 모나코 단장 코르크리스티안 칼센이다. 칼센은 제니트상트페테르부르크, 레버쿠젠, 하노버 등의 스카우트로 15년 이상을 활동한 선수 발굴 최고의 전문가다.

ESPN은 "16살의 나이에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합부르크로 온 손흥민은 18살에 데뷔를 했다. 그리고 지난 여름 1300만 달러(약 132억원)의 이적료로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겼다"고 소개했다.

칼센이 본 손흥민은 "탁월한 운동능력과 좋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로 마무리를 하는데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칼센은 "난 그가 공이 없을 때 보이는 움직임(Off the ball)을 좋아한다. 그는 매우 영리하다"며 "그가 어디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빠른 속력으로 상대를 제친다"며 돌파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과 유사한 선수로 네덜란드의 아르윈 로번을 꼽았다. 그러나 칼센은 손흥민의 약점으로 "그는 일대일 플레이에 능하지만 속도에 기반하고

있어 그 보다 빠른 수비수를 만나면 돌파하지 못한 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야가 좋지 않아 팀 동료 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잘 이용하지 못한다. 때로는 조금 이기적으로 누가 봐도 패스를 하는 게 옳은 상황 에도 그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팀동료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단점을 꼬집었다.

칼센은 손흥민과 함께 일본의 히로시 키요타게, 카메론의 공격수 빈센트 아부바카, 코스타리카의 수비수 서지 오리에, 코스타리카의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 스위스의 수비수 파비안 사르, 포르투갈의 미드필더 윌리엄 카르발류, 스위스의 공격수 요심 드리미치, 수비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러시아의 미드필더 올렉 사토프를 선정했다.

영국 일간지 선데이 익스프레스도 손흥민을 '브라질 월드컵서 빛날 유망주 6인'에 꼽았다.

이 신문은 손흥민에 대해 "그는 손세이셔널로 알려졌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또 "팀의 빠른 역습 스타일과 대형 스타가 될 자질을 완벽히 갖췄다"며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 외에 미랄레 파니치(24·AS 로마), 하메스 로드리게스(23·AS 모나코), 라힘 스틸링(20·리버풀), 폴 포그바(21·유벤투스), 알렉산데르 코코린(23·디나모 모스크바)을 유망주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손흥민

## 전력분석 코치 합류

### 벨기에·러시아 축구 정통... 두 사트니에 흥명보호 참여

안톤 두 사트니에(네덜란드) 전력분석 코치가 마이애미 캠프에 합류하면서 흥명보호의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국 분석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흥명보호 축구 대표팀 감독은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사트니에 코치가 해외에 머물면서도 계속 대표팀과 연락을 취하며 자료를 보내왔다"며 "꾸준하게 조별리그 상대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럽 출장길에 나선 두 사트니에 코치는 조별리그 상대국인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의 평가전을 두루 관전하고 8일 마이애미 캠프에 합류했다. 두 사트니에 코치는 그동안 러시아 분석에 힘을 쏟으면서 다량의 보고서를 흥 감독에게 제공해 대표팀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팀에서 전력 분석을 담당하는 두 사트니에 코치는 2008~2011년까지 위트레흐트(네덜란드)의 사령탑을 맡았고, 2012년에는 안지 마하치칼라(러시아)에서 거스 허딩크 감독을 돕는 코치로 활동하며 당시 코치 연수를 받고 있던 흥 감독과 인연을 맺었다.

흥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난 뒤 허딩크 감독의 조언에 따라 두 사트니에 코치를 전력 분석 코치로 영입했다.

네덜란드에 인접한 벨기에 축구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안지에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 선수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흥명보호에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흥 감독은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보니 예상대로 조별리그에서 불을 세 팀의 전력이 모두 뛰어나고 공격력도 강했다"며 "가나와의 평가전을 마치고 브라질로 들어가게 되면 두 사트니에 코치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대국 전력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으랏차차~ 16강"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손흥민이 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가진 공식훈련에서 헤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기분, 1년만이야"

### 박인비, 매뉴라이프 우승...LPGA 통산 10승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로의 그레이 사일로 골프장(파71, 6330야드)에서 열린 매뉴라이프 LPGA 파이낸셜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나흘째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무려 10개를 쏟아내 10언더파 61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써낸 박인비는 크리스티 커(미국·20언더파 264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앞서 올해 3월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3개를 포함해 6승을 올렸던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을 시작으로 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말 US여자오픈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59주째 세계랭킹 1위를 지키다 지난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게 내줬던 그는 이번 우승으로 정상에 탈환하지는 못하지만, 세계 1위 복귀의 발판을 닦았다.

우승 상금 22만5000달러(약 3억원)를 챙긴 박인비는 시즌 상금 74만510달러를 기록, 상금 순위 4위로 올라섰다.

이 대회에서는 지난해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을 가져갔다.

3라운드까지 평산산(중국)에게 두 타 뒤진 2위에 올랐던 그는 마지막 날 전·후반 각각 버디만 5개를 잡아내 무려 10타를 줄이는 완벽한 플레이로 역전극을 펼쳤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공동 4위(16언더파 268타), 세계랭킹 1위인 루이스는 미셀 위(25·나이키 골프)와 공동 6위(15언더파 269타)에 올랐다. 최은정(24·볼빅)은 14언더파 270타로 공동 8위에 자리했고, 디펜딩 챔피언 박희영은 공동 10위(13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골프 유망주 다 본다

### 오늘 호심배 개막...4대 대회 잇따라

한국골프를 이끌어갈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골프협회에 따르면 10~13일 화순C.C.에서 열리는 제12회 호심배 대회를 필두로 제21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8월19~22일·대구), 제18회 대보그룹배 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8월26~29일·서원힐스), 허정구배 제61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9월2~5일·남서울) 등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아마추어 4대 메이저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중 호심배 대회는 광주대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근 박사가 광주대 무역학과 출신인 최경주의 미국 PGA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창설한 것으로 다른 3개 대회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첫 선발전이 갖에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하는 '빅매치'로 꼽히고 있다.

현재 LPGA에서 활약 중인 최나연이 1회 대회 우승자이며, 2012년 KPGA상금왕 김비오, 올 KPGA 수퍼투키 김효주가 호심배 출신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전원과 유망주 등 200여명이 출전해 1일 18홀씩 4일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로 우승자를 가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